



Life-Long **Friendship**
Life-Changing **Leadership**



한미학생회의 (KASC)

한미학생회의(Korea-America Student Conference, KASC)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학문적,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미 양국 간 학생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 우정, 신뢰를 추구하며 평화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학생회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미 양국의 학생 50명에 의해 직접 계획 및 수행되는 학생 주도 프로그램이며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프로그램은 여름 한 달 동안 진행되며, 학생 대표들은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캠퍼스와 기관들을 방문하고 강연과 세미나 그리고 지역사회/봉사 활동과 현장학습에도 참여한다. 한 달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예술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토론과 논쟁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의견 표출, 소통과 협상 등으로 답을 도출해 내는 방법을 배운다. 이로써 한미학생회의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미 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며, 나아가 학생 간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 한미관계를 공고히 한다.





목 차

- **ISC EXECUTIVE DIRECTOR 인사말** ----- 1
- 제6회 한미학생회의 개최 축하서신 ----- 2
- 제6회 한미학생회의 테마 및 원탁회의 주제 ----- 3
- 제6회 한미학생회의 주요행사:
 - 오리엔테이션 ----- 4
 - 포항, 한동대학교 ----- 5
 - 서울, 연세대학교 ----- 6
 - 인천, 제1회 청년 커리어 포럼 ----- 7
 - 대전, 카이스트(KAIST) ----- 8
 - 제주대학교, 제주 ----- 9
 - KASC-KITA 공동 파이널 포럼 ----- 10
- 한미학생회의 참가 후기 ----- 11
- 2014년도 제7회 한미학생회의 개요 ----- 12



ISC Executive Director 인사말

By all measures, the 6th Korea-America Student Conference (KASC)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nferences in KASC’s history. The 10 KASC student leaders from both countries worked closely for nearly a year to implement a month-long conference filled with academic field trips, roundtable discussions, lectures, and community service.

Bringing together 40 students competitively selected from universities in the U.S. and Korea, our delegates convened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Pohang), Yonsei University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Seoul), Korea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 KAIST (Daejeon), and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Island).**

As a unified troupe, the 6th KASC delegation learned about Korea’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t the POSCO steel company, visited the Demilitarized Zone (DMZ), symbol of the Korean War and the divided peninsula, held the very first KASC Youth Career Forum, and engaged with government leaders such as Ambassador Sung Kim and Incheon City Mayor Song. This year, the 6th KASC also partnered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to hold a Joint Final Forum at the Coex Convention Center.

What distinguishes KASC from other exchange programs is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that KASC entrusts students leaders in creating their own conference. All activities that you will read in this report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student Executive Committee. This year, the student leadership was particularly outstanding — they worked together with an exceptional understanding of one another and led the delegation with confidence. Thus, ISC’s student-run model has proved effective again: nothing empowers young leaders to know and understand each other more than having a true “ownership” over a program where they spend an entire month planning, studying, living and laughing together— and KASC does exactly that.

We would like especially to thank our benefactors and host universities, including the Korea Foundation, the Freeman Foundation, the Nimick Forbesway Found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AIST, Yonsei University, and Handong Global University. Your support has nurtured and inspired a new generation of leaders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hope you enjoy the following report of KASC’s activities and accomplishments in 2013. We look forward to celebrating our seventh Conference with you next summer!

Sincerely,

Yuuki Shinomiya
Executive Director



한미대학생컨퍼런스(KASC) 축하 서한


올해로 제 6회를 맞는 한미학생회의의 한국 개최를 축하드리며, 미국 및 한국의 대표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한미학생회의의 활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양국 학생 간 상호 이해 및 신뢰가 깊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학생회의는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할 뿐 아니라 양국 학생들 간의 따뜻한 우정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학생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진행될 한달 간의 한미대학생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교육부 장관 서 남 수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Korea*

April 8, 2013

Message to
Korea America Student Conference Participants

Congratulations on your participation in the 2013 Korea America Student Conference.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has never been stronger. We represent two nations that have shared common values and the understanding that by standing together and maintaining a close partnership, we can ensure a long term peace and prosperity in this region and around the world.

By joining the Korea America Student Conference, you have becom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at lasting peace and prosperity. As a result of this program you will not only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policy, and interests of our two nations, but you will also understand one another better as well, and it's that person-to-person contact that underpins the foundation of our alliance and partnership.

I send my compliments to the organizers of this conference, including the KASC alumni who have come back to serve on the board and help continue this important program, and my best wishes to all conference members.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this summer.



Sung Y. Kim

제6회 한미학생회의 테마 및 원탁회의 주제

통합을 위한 협력, '하나 되는 세계'

학생 주도 국제 토론회의

매년 7월, 참가자들은 회의 시작 전 주어진 다섯 개의 원탁회의 (Roundtable - RT)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각 참가자는 본인이 속해 있는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한 달 간 심층적인 토론을 하고, 파이널 포럼(Final Forum)에서 최종발표로 마무리 짓는다. 원탁회의의 목적은 한미학생들이 국제갈등 및 이슈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2013년도 제6회 한미학생회의 주제로는 비즈니스 분야, 국제개발 분야, 정치 분야, 예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가 있었다.



Business RT

: 임팩트 비즈니스-이윤 극대화에서 가치 극대화로

원탁회의 리더: Andrew Ghim, 황지영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s"라는 주제로 자본주의의 대변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사회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진보를 맞바꾸지 않아도 됨이 증명되었다. 임팩트 비즈니스는 저개발국의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발견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기업에 경제적인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조건과 발전된 기술,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개선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시장이다. 비즈니스 RT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미래의 기업가로서, 우리는 북한을 포함하여 아직 비즈니스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의 시장 가치를 발견하고 기업과 사회에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U.S.-ROK Politics RT: 평화와 안보-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

원탁회의 리더 - 박혜진, 정윤경

국가 간 국제협력, 평화, 안보를 위해 맺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강력한 군사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의의가 한반도의 안보유지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일례로 평양(북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모델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상반된 시각으로 양국은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 RT에서는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북한의 단독주의 노선체제가 점점 약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화 관계를 위하여 동의할 만한 조약이 무엇인지 모색할 것이며, 북한의 새로운 정권교체로 인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Art and Culture RT: 문화와 예술로 바라본 한국과 미국의 만남

원탁회의 리더: Alexander Pryor, 이슬비

세계화와 더불어 나날이 발전해 가는 한미관계에서 문화적인 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Michael Jackson에서 Maroon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국의 예술가들이 사랑을 받아왔으며, 미국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수많은 패러디를 낳으며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문화적 흐름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두 문화의 배경을 과거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문화와 예술은 양국 간의 상호이해와 친선의 기반이 된다. 문화와 예술 RT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두 나라의 뚜렷하고 특징적인 문화를 연결할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

Science and Technology(S&T) RT: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한미관계의 미래발전

원탁회의 리더: Marteka Fair, 이강산

한미 양국은 지난 60년간 안보,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영화, 우주항공, 의학, IT, 자동차, 건축,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세계교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이슈가 되는 가운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과학기술 RT에서는 한미관계에 있어 이 분야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미 양국의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한미 양국이 공동노력을 통하여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International Development RT

: 인간 잠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원탁회의 리더: Tiffany Vang, 김보경

경제발전과 인권은 보통 다른 분야로 인식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근, 환경, 교육, 보건, 민족과 성, 그리고 세계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는 국제개발의 영역에서 빈곤 문제는 단지 임금 상승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국제개발 RT에서는 대외 원조에의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과 자립, 그리고 나라 간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개발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미관계가 인권과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사회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 방법과 해결 방안을 탐구할 것이다.



‘한미학생회의’ 첫 발을 내딛고, 드디어 만나다!

회의에 앞서, 한미학생회의 참가학생들은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은 리더십워크숍, 강의, 환영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각 한미학생회의 참가학생들은 친목을 다지며, 앞으로 한국에서 있을 한 달여의 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미국 오리엔테이션: 스탠퍼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미국 학생대표단은 캘리포니아 Palo Alto에 위치한 스탠퍼드 대학교에 모였다. 미국 학생들은 현 한국연구학과의 부소장인 데이비드 스트라우(David Straub)와 만나 패널 세션을 가졌으며 데프나 저(Dafna Zur)와 카트리나 젤웨거(Katharina Zellwegger)교수님의 강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전 한미학생회 1기 대표단에게 한미 상호간 문화적, 사회적 차이점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 날, 7월 2일에 진행된 리셉션에는 Council on Korean Americans(CKA)의 필 윤(Phil Yun), 그랜트 김(Grant Kim), 캐서리나 민(Catharina Min)가 함께하며 패널 토론과 학생 자기계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한국 오리엔테이션: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미학생회 6기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대표단은 브리핑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였으며 ASEAN Korea의 이연아 팀장, KASC 자문단의 문천상 대표, 그리고 세인트 노버트 대학(St. Nobert College)의 웨인 패터슨(Wayne Patterson) 교수의 강연에 참석하였다. 주요행사인 리셉션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김태환 부장이 참석하여 한국 학생대표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였다.

7월 3일, 한국학생대표단은 첫 목적지인 포항의 한동대학교로 이동하여 미국학생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였다.

▼ Council of Korean Americans의 대표자, Catharina Min과 이야기를 나누는 미국 학생대표단



▼ 스탠포드 채플 앞에서, 미국학생대표



▼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개최된 환영식에서, 한국학생대표단



배움, 경험, 그리고 실천



한미학생회 6기의 첫 개최지 포항은, 한미학생회 개최이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시작이었다. 한미 학생대표단들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 대하여 배우고, 절에 머물며 불교인의 삶과 덕목을 경험하며, 벽화 그리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했다.



▶ 한미학생대표단의 Arts and Culture RT에 대한 첫 토론의 장

▶ 사회환원 프로젝트로 초등학교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미학생대표단



▼ 제 6회 한미학생회의 개최식에서 강연중인 최도선 박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속한 불국사 스님에게 참선을 배우고 있는 한미학생대표단

한미학생대표단, 평화를 말하다



한미 학생대표단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를 방문하는 동시에, 서울과 근교의 다양한 볼거리도 즐겼다.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을 방문하여 팽팽한 남북갈등의 현장을 경험하였고, 김성(Sung Kim) 대사를 만나 한미관계의 발전역사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해당 일정 동안, 국제연합 인권 고등판무관과 삼성전자 관계자의 브리핑에 참석하여 정치, 인권, 역사,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토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 미국문화원의 김 성 대사와 함께한 한미학생대표단



▲ 공동경비구역 DMZ 중부지역에 방문하여 숙연하고 뜻깊은 하루를 보낸 한미학생대표단



▶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중인 대표단

2013년 7월 17일 ~ 7월 18일

글로벌시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밝은 미래를 꿈꾸다

한미학생회의는 게일 인터내셔널 (Gale International)의 후원으로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첫 청년포럼을 개최하였다. 한미학생회 6기 대표단, 한미학생회 동문, 다양한 대학 및 기관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서로 교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미 학생대표단은 청년 실업문제와 직업의 불안정성 대한 현주소를 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고용시장을 대비해, 일자리 변화동향을 파악하고 개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첫 포럼의 성공적 마무리에, 내년에 있을 제7회 학생회의에서 또한 청년 커리어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 커리어포럼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인천 송영길 시장



◀ 송영길 시장과 한미학생대표단

▼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의 로랜드 윌슨(Roland Wilson)교수에게 질문하는 대표단



▶ 미국학생대표단에게 받은 선물을 들고 있는 집행위원단 학생



2013년 7월 14일 ~ 7월 22일

한국, 전통과 현재의 공존



한미학생회 6기는 대전과 전주에서 한국의 IT 기술과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IT 강국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이후,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한 한미 학생대표단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떡과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한복 입기, 전통 미술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로봇공학에 대한 강의를 듣는 한미학생대표단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대표단



▶한국원자력발전소에 방문한 대표단



▶대중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대표단

2013년 7월 23일 ~ 7월 29일

아름다운 자연과 특유한 민속문화를 간직한 제주에 가다

학생대표단은 제주만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독특한 화산섬 지형을 체험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현지주민과의 홈스테이 체험을 통하여,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주의 민속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기도 하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표단은 원탁회의에 집중하며 파이널 포럼을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다.



▶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한 대표단



▼ 제주대학교에서 호스트 패밀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대표단



▶ KAL 호텔에서 폐회식을 갖는 제 6회 한미학생회의



▲ 제주 4.3사태의 희생자를 기리는 평화공원을 방문한 대표단



2013년 7월 30일

하나되는 세계

지난 7월 30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제6회 한미학생회의와 한국무역협회는 '하나 되는 세계'라는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무역협회의 친선대사와 학생대표단은 각 원탁회의 주제에 걸맞는 심도 있고, 수준 높은 발표로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KITA와 ISC 이사회로부터 각각 연사가 참석하여 합동포럼의 자리를 빛내주었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재단 및 아산정책연구소에서 모셔온 패널 참석자들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피드백을 주었다.



▶ 비즈니스 원탁회의 발표



◀ 참석자와 어우러지는 한미대표단

▼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미학생회의와 한국무역협회 친선대사

▶ 패널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학생집행위원회 학생



한미학생회의 참가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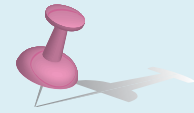


Florence Maher, KASC 1
Current Profession: Diplomat



Many of us applied for KASC looking for a fun summer of making friends and improving language skills. What KASC teaches, however, goes far beyond verb conjugation. Instead we learned teamwork in an international context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 assets which cannot be captured in a vacation snapshot, and without which I would not be where I am now. For many, myself included, KASC is an intense experience conjuring fierce emotions. Group and cultural dynamics are heightened by the exciting schedule and close interaction. The bala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delegates results in two cultural norms, two languages, two natural groupings which simultaneously (chaotically! exhilaratingly!) co-exist, compete, merge and reform. Rare is the delegate who emerges unaffected. I learned a lot from my fellow delegates about myself – as a leader, as a group member, and as a social being.

Although I felt tearful when KASC ended, in the months that followed, I realized that the end was only the beginning. I reflected on and tried to integrate the lessons I had learned during my time with KASC. What had I learned? First and foremost – communication. We worked in roundtables with two distinct linguistic and cultural groups. Next – interpersonal skills. We shared close quarters with strangers from halfway around the world who did not share our cultural assumptions and expectations. Finally – leadership and team-building. This month-long, four-city conference is organized by a group of students located on multiple continents. As a member of the US diplomatic corps, my job requires strong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d teamwork skills. Diplomacy is not about speaking the loudest or the longest, but rather about creating common ground from differing perspectives and positions. During KASC, our “common ground” of mutual interest and good will is considerably wider, but the idea is the same: we have differences. How can we work together?



Bokyoung Kim, KASC 5 and KASC 6
Chair of the Korean Executive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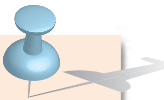
KASC is truly a wonderful journey that you are privileged to have as a student. After being actively engaged in your surroundings, you will discover yourself nurtured as a true leader. Through a one year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onth-long conference, I redefined the meaning of a leader. Leadership is not about you. It is really about the team. A leader is not only about representing the team or speaking with high profile people. A leader’s greatest responsibility is to lead the team and make their efforts worthwhile. Leading a delegation of 40 diverse students made me realize that leadership starts from responsibility. Without responsibility, you are just a boss, not a leader. As the previous Korea Chair of the 6th KASC, I was responsible for many things such as planning a month-long conference schedule and building connections with corporations and professionals. Despite many of the challenges, which sometimes were uncomfortable to face, my responsibility as Chair drove me to take initiatives, stretch myself and reach beyond my grasp. Being comfortable with the uncomfortable actually made me grow more in the end. KASC presented me a global passport in my head that not only enable me to be adaptable to changes, but also be proactive in creating positive changes.



Jose Pulido, KASC 3 and KASC 4
Current Profession: Researcher at Mitsui



KASC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not just for enriching my college experience, but for setting me up with a great set of skills for my professional career. Though I became a better leader, team-player, and problem-solver through my experience as 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the most important skills I gained were my communication skills. By its very nature, KASC forces members to refine thei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teamwork with their peers. However, I also found myself interacting with people of all sorts of age-brackets as well (which requires a different set of formalities and courtesies). This is a skill that I use daily in my work-place, as I interact with Latinos, Asians, and Americans, of all social, educational, and generational backgrounds. I honestly feel that KASC played a crucial role in developing this skill, and I would recommend anyone to attend KASC to achieve that goal.



Tiffany Vang, KASC 5 and KASC 6
Chair of the American Executive Committee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for anyone, I believe, is to invest and build something that they can call their own, and KASC gave me a wonderful opportunity to turn my ideas into a reality. As the previous America Chair for the 6th KASC, it has been a challenging and rewarding path for me. Leading a delegation of 40 diverse students, planning a month long conference schedule, building relationships with companies and professionals, and on top of that fundraising is a lot of responsibility for a college student, but it’s such a unique experience that has made me a better leader. Not only did my experience in KASC solidify my interest in economic development in Asia, but it challenged the way I approached and worked with people. Planning a conference with my Korean counterparts showed me that a real leader is someone who can make hard decisions, adapt to different cultural surroundings, engage and actively build relationships, and also take the initiative to try different ideas and projects. After my experience in KASC, I feel fearless! I feel that anything I put my mind to is possible.



2014년도 제7회 한미학생회의 개요

제7회 한미학생회의는 7월1일부터 7월30일 한 달간 진행될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학생을 모집중이다. 2014년 제 7회 한미학생회의 테마는 **Introspection: Opportunity to Learn, Grow, and Prosper**이고 서울, 강원도, 부산, 제주도에 개최될 예정이다.

원탁회의 주제 (Roundtable Topics)

1. 비즈니스와 사회 RT: 비즈니스와 사회의 상생방안 모색
2. 소통과 문화 RT: 문화 간 소통 증진을 위한 미디어 활동
3. 교육 RT: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교육의 뉴패러다임
4. 인권 RT: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5. 정치와 안보 RT: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그리고 새로운 방향

지원자격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다. 한미학생회의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영어로 진행되므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실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어를 하고자하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참가비용

한국대표단 참가자: \$2,500 (USD)
 미국대표단 참가자: \$3,500 (USD)
 참가비는 프로그램 기간 내의 숙식비, 교통비 (항공료 일체 포함),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비용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참가자가 대학교, ISC 및 기타 기관의 후원금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듯이, 참가자들이 ISC를 포함한 여러 대학 및 타 기관들에 후원금을 요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지원절차

지원과정: www.iscdc.org 접속 후 온라인 지원
 제출마감: 2014년 1월 31일

*지원관련 문의 및 절차는 www.iscdc.org 에서 확인가능

Korea-America Student Conference
한미학생회의
INTROSPECTION:
Opportunity to Learn, Grow, and Prosper
SUMMER 2014
 gangwondo seoul busan jeju island
 강원도 서울 부산 제주도

Priority deadline: January 31st
Visit www.iscdc.org/kasc to apply & learn more information!

국제학생회의 (ISC)

국제학생회의(ISC)란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단체로서 한국-미국학생(KASC:한미학생회), 그리고 일본-미국학생(JASC:일미학생회)의 학문적, 문화적 교류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1934년부터 시작된 일본과 미국사이의 가장 오래된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JASC를 바탕으로 KASC는 2008년에 한미 양국 대통령의 축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s Inc.

1150 18th St NW # LI2

Washington, DC 20036

TEL: +1 (202) 289-9088

FAX: +1 (202) 789-8256

www.iscdc.org